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3년 11월

선교편지 제 169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인에게 있어서 '선거'란, 국민 개개인이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의사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난 2022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무려 84%가 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거에 대한 온 국민의 열기가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선거일이 공휴일이고, 부재자 투표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까닭에, 투표를 위하여 마치 추석과 같은 명절처럼 주소지가 있는 고향으로 대이동을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월요일'에 실시하는데, 투표를 위하여 토요일부터 주소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의 출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2023년 10월 30일은 필리핀의 지자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랑가이 (Barangay) 대표 (Captain/Punong Barangay) 와 7명의 임원 (Sangguniang Kabataan)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바랑가이 선거는 매년 3년마다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 지연되어, 마침내 5년만에 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적된 선거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워서, 나라 전체가 선거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선거 전날까지 수 많은 후보들의 선거 유세 차량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동네 곳곳을 샅샅이 누비며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 후보를 지원하는 무리들이形形色색의 풍선으로 장식한 긴 행렬의 트라이시클을 앞세워 세력을 과시하고, 밤, 낮으로 동네 공터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선거 유세를 합니다. 빈틈이 있는 곳마다 후보자들의 벽보가 산만하게 붙어 있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단이 무리를 지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교통 체증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필리핀의 선거는 선거 후 당선과 낙선의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선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5년 전, 바랑가이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다툼으로 34명이 살해 되었다고 하는데, 5년 만에 치루는 금년 선거에는 사건 사고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 전후로 3개월 동안, 필리핀 전국에 군경과 합동으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계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소재 미국 대사관은 선거에 즈음하여 자국민에게 선거 기간동안 안전에 유의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거는 목숨을 걸고 치루는 전쟁과 같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랑가이 대표는 35,000 페소 (약 \$614), 7명의 임원은 15,000페소 (약 \$260)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지자체장과 임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적은 월급입니다. 하지만 책임과 권한은 월급에 어울리지 않게 막강하여, 지자체에 관련된 모든 사업과 이권에 깊이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랑가이 대표를 통하지 않고는, 바랑가이에서 어떠한 일도,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건축 허가도 바랑가이 대표의 '확인서' (Barangay Certification)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나 '물'을 신청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서류 중의 하나가 바랑가이 대표의 '확인서' 입니다. 바랑가이 대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여서, 바랑가이 대표는 단연코 바랑가이의 '소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위하여 마띠, 띠구만, 익핏 등의 바랑가이 대표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초대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하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여, 지금까지 바랑가이와 큰 어려움 없이 좋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팔라야 예일교회가 위치한 아팔라야 바랑가이 대표와는 대화하기가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그의 종교가 '이슬람교' 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랑가이 선거는 바랑가이 대표와 임원들이 전원 교체되는 선거입니다. 아무쪼록 지자체를 잘 이끌어갈 정직하고 유능한 대표가 선출될 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큰 유익을 끼치는 인물들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후 2:1-2)**

 2023년 10월 7일, '마띠 교회' 착공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림으로 마침내 디고스 지역에 세번째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감격적인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마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0여년 전 매주 토요일마다 현지인들이 자주 먹는 '루가우'를 끓여 마띠 지역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곳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건축 설계도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의 4주 이상을 동분서주한 끝에 드디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건축할 당시에도 경험한 바 있지만,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설계도면과 각종 서류 문치를 들고, 각 부서를 찾아 다니며 각종 규제를 꼼꼼하게 만족 시키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력서에도 없는 건축가가 되어서, 관련 부서의 건축 전문가들과 계산기를 두드리며 각종 수치를 확인하며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시험을 치루듯이 모든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에 마침내 '건축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축을 위하여 1,895 m<sup>2</sup>의 교회 부지를 깨끗하게 벌목하고, 잡초들을 치우고 나니, 마띠 '반석'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을 만큼 비교적 큰 바위들이 곳곳에 박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한 중장비를 동원하여 교회 땅에 박혀 있는 불필요한 바위와 큰 돌들을 치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당, 친교실, 교육실, 교역자 사택 건물을 배치할 곳을 다시 측량하여 표시를 해 두고, 다림줄을 사용하여 전체 건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물의 기초 높이를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떤 특수한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사람의 손'과 '줄 자'와 '나일론 실'을 사용한 옛날 방식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에 따라 기둥과 기초를 세울 곳의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아닌, 인부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여, 필요한 깊이 만큼 흙을 퍼냅니다. 한편에서는 기둥과 기초에 필요한 철근을 제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일이 줄 자로 확인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년전 디고스 예일교회와 4년전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건축할 당시, 이러한 불안한 (?) 건축 현장을 보며, 과연 교회 건물이 세워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웬만한 작업 공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건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16명의 인부가 동원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건축 현장에 모여서, 기도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여, 매일 강조하지만 작업자들에게는 때때로 불편한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안전 헬멧을 착용하도록 해도, 더운 날씨로 인하여 한 시간 이상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장갑도 귀찮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작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더운 날씨 가운데 익숙하게 일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마띠 교회 건축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착공 예배를 드린 다음 날인 10월 8일에,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에서 주님을 새롭게 영접한 3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자 교육을 통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과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마침내 인근 해변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자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2명의 교인도 있었는데, 마치 마가복음 2장의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의 모습처럼 다른 교우들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세례를 받게 되어 더욱 더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루 속히 마띠 교회 교인들도 세례식에 포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매일 마띠 교회 건축 현장으로 출퇴근 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디고스 예일교회 '사택'으로 옮겼습니다. 방과 부엌만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라도 시켜 주신다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약속한 16년전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기도'와 '용기'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띠 교회 건축을 통하여 선교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며, 작업자들의 안전과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잃어버린 영혼들이 두손들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마띠 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